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자기관리역량과 그릿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융합연구

김은아¹, 이상준^{1*}, 박경임²

¹동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²전남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A Convergence Study about the Influence of Self-management Competency, and Grit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Graduate School of Nursing Students

Eun-A Kim¹, Sang-Jun Woo^{1*}, Kyung-Im Park²

¹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Dongshin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Chunnam Techn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관리역량, 그릿 및 취업준비행동의 관계를 파악하고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G시와 J도에 소재한 3개 대학교 간호대학생 206명이다. 자료분석은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기술분석, Pearson's correlation, t-test, ANOVA, multiple regression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관리역량($r=.41, p<.001$)과 그릿의 노력지속성($r=.44, p<.001$)이 취업준비행동과 정적상관, 그릿의 흥미일관성($r=-.34, p<.001$)이 취업준비행동과 음적상관을 나타냈다.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영향에서 자기관리역량($\beta=.27, p<.01$)과 그릿의 노력지속성($\beta=.22, p<.01$)은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영향, 그릿의 흥미일관성($\beta=-.32, p<.001$)은 취업준비행동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기관리역량 및 그릿의 노력지속성 증진과 함께, 그릿의 흥미일관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간호관련 취업분야를 제시하는 취업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간호, 학생, 자기관리, 그릿, 취업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graduation year, self-management competency and grit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6.0 program, frequency analysi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Self-management competency($r=.41, p<.001$) and persistence of effort($r=.44, p<.001$) of the grit sub-factor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Interest consistency($r=-.34, p<.001$) of the grit sub-factor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Self-management competency($\beta=.27, p<.01$) and persistence of effort of the grit sub-factor($\beta=.22, p<.01$) had a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Interest consistency of grit sub-factor($\beta=-.32, p<.001$) showed a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In order to promote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improve self-management competency and persistence in effort. It also suggests that a strategy to suggest various nursing-related employment fields is needed to reduce interest consistency.

Key Words : Nursing, Student, Self-management, Grit, Employment

*Corresponding Author : Sang-Jun Woo(woosj@dsu.ac.kr)

Received October 4, 2021

Accepted January 20, 2022

Revised November 11, 2021

Published January 28,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들은 보통 취업준비를 신입생 시기부터 시작해 졸업 후까지도 이어가는 경향을 보여, 취업을 위한 준비 기간이 늘어나는 추세로 미래의 직업에 대한 관심 및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1]. 또한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하여 학문을 탐구하는 것은 진로와 직업을 결정하는 준비과정으로 자아실현과 생존을 위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2]. 하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도 간호학과에 진학한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사라는 보전 의료 전문직에 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인식해 [3], 비교적 취업률이 높다는 이유로 전공에 대한 속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학과에 지원하는 양상이 늘고 있다[4]. 간호대학생들은 대학 재학 동안에 다양한 취업 및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타과 학생들과는 달리 입학 당시에 미리 취업과 진로를 예상하게 된다[5]. 그간 간호대학생들은 대학생활 동안 장기적인 열정과 인내를 갖고 성취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타 전공학과 졸업생들보다 취업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에, 취업준비와 관련해 단순히 의료기관의 간호사 채용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높았다[4]. 즉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취업에 사려깊은 고민없이 졸업 후 병원간호사라는 진로를 중심으로 취업처를 선택하다보니 초기 이직률이 높고 졸업 후 미취업자도 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6]. 이와 더불어 해마다 간호대학 졸업생 숫자가 증가되는 반면, 학생들이 원하는 대형병원의 수요는 제한적이기 때문에[4] 간호대학생도 취업을 위하여 성적 및 토익점수획득 뿐 아니라 다양한 간호사 취업분야의 모색과 함께 각 분야에 적합한 취업준비행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기관리역량은 목표 달성에 기초가 되는 능력을 갖추고 잠재력을 발휘하여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고 개인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7]. 졸업 후 취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설정과 실행력, 목표달성을 위한 학습전략 및 목표를 구체화 시키고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자기관리역량이 필요하다[8]. 또한 자기관리역량은 대학생의 학교생활에서 대학교육의 효과성 및 취업진로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8]. 보통 간호학과에 진학 후 학생들은 간호실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핵심역량에 도달하

기 위하여 많은 양의 학업과 임상실습 등의 엄격한 교육 과정을 통해 간호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완성해 가야 한다[9,10]. 특히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긴장감이 발생하여, 학과를 본인 스스로 선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학이나 자퇴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9]. 이와 같이 간호사면허 취득을 위한 학업 이수 과정과 취업목표 선정 및 이에 부합하는 노력을 진행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에게 자기개발역량은 더욱 요구되는 요소이나 아직까지 간호대학생의 자기관리역량에 대한 연구는 드물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자기관리역량은 학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졸업 후 임상 현장에서 환자와의 상호작용에 효율적인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10] 등을 고려할 때 간호대학생의 자기관리역량이 취업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다.

그릇은 목표를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속적인 열정과 인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사회적·심리적 측면에서 꾸준한 노력과 흥미를 지속하는 특성 중 하나이다 [11].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간호사로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해 개인의 사회적·심리적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12]. 기존 연구에 따르면 그릇은 대학생들의 적응력과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특히 간호학과를 선택한 학생은 그릇의 수준이 높은 편이었고[13], 간호대학생의 그릇은 학업적응과 취업 등 장기적인 성취를 위한 의미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9]. 그러므로 탁월한 성취를 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성격특성인 그릇[11]은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필요한 요소를 예측 할 수 있다[14]. 그릇은 목표달성을 위해 일관된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지속하는 특성을 지니며, 흥미 일관성과 노력지속성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된다 [15].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그릇과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보면, 그릇의 하위요인인 노력 지속성은 취업 및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영향을 미쳤지만, 그릇의 하위요인인 흥미일관성의 경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1,16], 역으로 흥미가 다양한 경우, 즉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인 경우 취업준비행동이 더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릇의 각 하위요인이 간호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보이는지 규명하고자한다.

간호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

한 연구는 직업가치관 및 진로태도성숙도[4,6], 간호직 문직관[18], 진로계획, 진로탐색행동 및 경력개발[19]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다. 하지만 자기관리역량과 그릿을 변인으로 하여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자기관리역량과 그릿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 향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관리역량과 그릿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 2) 대상자의 자기관리역량과 그릿 및 취업준비행동 정도를 확인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차이를 확인한다.
- 4) 대상자의 자기관리역량과 그릿 및 취업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5) 대상자의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하여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자기관리역량과 그릿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G시와 J도에 소재한 3개의 간호학과에서 연구자가 편의추출 방법을 통해 표출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한 적정 표본크기 산정을 하기 위한 최소 표본의 크기[20]는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95, 효과크기 .15로, G power 3.1.2 program을 이용한 결과 적정 개수는 160개였으며, 회수율과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21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그 중 응답이 적절하지 않은 9부를 제외하고 206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2.3 자료수집방법 및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 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

행되었고, 각 학교의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뒤, 학과의 절차에 따라 자료수집에 대한 허락을 구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한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설문중간이라도 응답을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설문을 중단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한 후 설문을 시행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과,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한 뒤 비밀보장을 위해 설문 후 밀봉하여 수거하였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자기관리역량, 그릿, 취업준비행동 정도는 기술 통계로 분석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차이 분석은 t-test 및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 자기관리역량, 그릿 및 취업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2.5 연구도구

2.5.1 자기관리역량

자기관리역량은 Hellriegel과 Slocum[21]이 개발한 도구를 Kim[7]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관리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Kim[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0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8이었다

2.5.2 그릿

그릿은 Duckworth 등[11]의 Original Grit Scale(Grit-O)도구와 Rojas 등[22]의 도구를 Lee[15]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정한 후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흥미일관성과 노력지속성 각 6문항의 하

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총 12문항이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그릇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15]의 연구에서 흥미일관성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67$, 노력지속성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 이었고 그릇 전체의 신뢰도는 기술되지 않았으며, 본 연구에서 흥미일관성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71$, 노력지속성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88$ 이었다.

2.5.3 취업준비행동

취업준비행동은 Han[23]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설문지를 Yim[24]이 수정 및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는 점수를 말한다.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준비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Yim[2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1$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9$ 이었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 결과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학생이 160명(77.7%), 남학생이 46명(22.8%)이었다. 간호학과외의 경우 보통 4학년 1학기 중반부터 취업공고 시작되는 상황이기때, 취업준비기간은 설문 기간인 6월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인 110명(53.4%), 6~12개월 미만인 68명(33.0%), 12~24개월 미만인 22명(10.7%)이었다. 학점은 3.5~4.0미만이 97명(44.2%), 3.0~3.5미만이 67명(32.5%)이었으며,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153명(74.3%), 매우만족이 40명(19.4%), 불만족이 13명(6.3%)이었다.

Table 1.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206)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Female	160(77.7)
	Male	46(22.8)
Period of preparation for employment (month)	<6	110(53.4)
	6~<12	68(33.0)
	12~<24	22(10.7)
	≥24	6(2.9)
Grades	<3.0	15(7.3)
	3.0~<3.5	67(32.5)
	3.5~<4.0	97(44.2)
	≥4.0	33(16.0)
Major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13(6.3)
	Satisfied	153(74.3)
	Very good	40(19.4)

3.2 자기관리역량, 그릇, 취업준비행동 정도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를 확인한 결과 Table 2와 같다. 자기관리역량 평균은 3.74점(SD=.50), 그릇의 흥미일관성의 평균은 3.05점(SD=.70), 노력지속성의 평균은 3.60점(SD=.61), 전체 평균은 3.42(SD=.44), 취업준비행동의 평균은 3.03점(SD=.63)이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ment Variables (N=206)

Variables		Range	Mean±SD
Self-management competency		1~5	3.74±.50
Grit		1~5	3.42±.44
Grit	Consistency of interest	1~5	3.05±.70
	Persistence of effort	1~5	3.60±.61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1~5	3.03±.63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차이

일반적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Table 3과 같다. 취업준비행동은 취업준비기간과 학점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정결과 취업준비기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학점에서만 4.0이상인 경우가 3.0미만, 3.0~3.5미만 그리고, 3.5~4.0미만 경우 보다 유의하게 취업준비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F=7.250, $p<.001$).

Table 3. Degree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N=206)

Variables	Categories	M±SD	t/F(p) (Scheffe)
Gender	Female	3.01±.61	-.642 (p=.521)
	Male	3.08±.72	
Period of preparation for employment (month)	<6	2.09±.70	3.99 (p=.009)
	6≤~<12	3.12±.46	
	12≤~<24	3.19±.45	
	≥24	3.54±1.02	
Grades	<3.0 ^a	2.68±.55	7.250 (p<.001) d)a,b,c
	3.0≤~<3.5 ^b	2.89±.56	
	3.5≤~<4.0 ^c	3.04±.56	
	≥4.0 ^d	3.41±.79	
Major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2.84±.54	.914 (p=.403)
	Satisfied	3.02±.62	
	Very good	3.11±.69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206)

Variables	1 r(p)	2 r(p)	3 r(p)	4 r(p)
1	1			
2	.03 (p=.032)	1		
3	.63 (p<.001)	.53 (p<.001)	1	
4	.41 (p<.001)	-.34 (p<.001)	.44 (p<.001)	1

1. Self-management competency, 2. Consistency of Interest, 3. Persistence of effort, 4.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3.4 자기관리역량, 그릿, 취업준비행동의 상관관계

자기관리역량, 그릿의 흥미일관성 및 노력지속성과 취업준비행동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바는 Table 4와 같다. 자기관리역량은 취업준비행동과 정적상관(r=.41, p<.001), 그릿의 흥미일관성과 정적상관(r=.03, p=.032), 노력지속성과 정적상관(r=.63, p<.001)을 보였다. 그릿의 흥미일관성은 노력지속성과 정적상관(r=.53, p<.001), 취업준비행동 정도와 부적상관(r=-.34, p<.001)을 보였다. 그릿의 노력지속성은 취업준비행동 정적상관(r=.44, p<.001)을 보였다.

3.5 대상자의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

대상자의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자기관리역량과 그릿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t-test와 ANOVA를 실시하여 취업준비행동에 차이를 나타내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확인한 후 이들 변수를 통제하였다. 취업준비기간, 학점이 취업준비행동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 변수를 더미변수 처리하여 통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tolerance)가 가장 작은 값이 .25이므로 .10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였고, 분산팽창인자(VIF)의 가장 큰 값은 4.03으로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F=15.01, p<.001),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²)는 .38로 본 연구변인들은 대상자의 취업준비행동을 3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자기관리역량(β=.27, p<.01), 그릿의 흥미일관성(β=-.32, p<.001), 노력지속성(β=.22, p<.01)로 나타나 자기관리역량과 그릿의 노력지속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그릿의 흥미일관성이 낮을수록 취업준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대상자의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기관리역량, 그릿의 흥미일관성과 노력지속성이며 이 중 취업준비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그릿의 흥미일관성임을 파악할 수 있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관리역량, 그릿, 취업준비행동의 정도를 설명하고 예측력을 높이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이들의 취업준비행동 수준 향상을 위한 전략마련 시 도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주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대상자의 자기관리역량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74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0]의 3.67점,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5]에서 4점 만점에서 2.48점에 비해 미비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은 타 학과에 학생에 비해 과중한 이론수업과 동시에 낮설고 다양한 실습환경에 적응하며 최종적으로 국가고시라는 중요한 관문을 준비해야한다. 따라서 목표설정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시간관리[8],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거나 및 삶의 균형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기관리역량[20]의 함양이 우선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릿의 흥미일관성 평균은 5점만점에 평균 3.05점, 노력지속성 평균은 3.60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4]에서 각 3.27점, 3.36점,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에서 각 3.25점, 3.48점에 비해 흥미일관성은 다소 낮은 점수, 노력지속성은 높은 정도로 확인되었다. 즉 본 연구의 대상자는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노력을 지속하는 성향이 높은 편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취업준비행동 정도는 5점만점에 3.03점으로 도구의 차이가 있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hin의 연구[6]에서는 3.11점, Hwang과 Cha의 연구[18]에서는 2.74점으로 간호대학생들이 중간 이상 수준의 취업준비행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간호학과 졸업 후 미취업자 수의 증가 및 높은 조기이직률의 증가를 고려할 때 [18], 취업준비행동이 점차 필요해짐을 반증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학년별 취업준비정도는 학년이 상승할수록 증가하는 연구결과를 근거[6]로 졸업학년인 본 연구

Table 5. Affected Factors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N=206)

Variable	B	SE	β	t(p)	R ²	Adj R ²	F(p)	
Constant	1.61	.33		4.85(p<.001)	.41	.38	15.01 (p<.001)	
Self-management competency	.29	.09	.27	3.09(p<.01)				
Grit	Consistency of Interest	-.28	.05	-.32				-5.57(p<.001)
	Persistence of effort	.22	.08	.22				2.97(p<.01)

의 대상자는 중간이상의 점수가 도출된 것으로 보이며 추후 이들의 취업준비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은 취업준비기간과 학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결과 학점이 4.0이상인 경우 3.0미만, 3.0~3.5미만 및 3.5~4.0미만의 경우보다 유의하게 취업준비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적이 높은 그룹의 학생들일 중간정도이거나 낮은 그룹의 학생보다 취업준비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확인된 연구[1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취업준비기간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것은 Hwang과 Cha의 연구[18]결과와 동일하나 사후분석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적이 낮은 경우 자기 주도적 취업준비행동이 부족한 것으로[18] 생각될 수 있으며, 취업준비기간별 취업준비행동의 차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상대적으로 학점이 높지 않은 학생들을 포함한 취업준비행동 프로그램 운영 및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도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대상자의 자기관리역량, 그릿의 흥미일관성 및 노력지속성과 취업준비행동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릿의 흥미일관성과 취업준비행동은 부적상관, 그릿의 노력지속성과 취업준비행동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그릿의 하위요인들과 취업준비행동을 연구한 문헌이 드물어, 이와 유사한 진로준비행동과의 연구를 비교해보면 그릿의 노력지속성이 진로준비행동과 정적상관 관계를 보였던 연구[1,16], 성실성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인 연구[26]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우선 흥미일관성이 낮을수록 취업준비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재해석해보면 여러 분야에 관심이나 목표가 다양할수록 취업준비행동이 더욱 활발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기관리역량과 취업준비행동은 정적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두 변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가 드물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7]에서 자기관리역량 상위 집단 학생들이 하위집단 학생들보다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게 나온 결과와 비교할 만 하다.

대상자의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한 결과 그릿의 흥미일관성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고, 차 순위로 자기관리역량 및 그릿의 노력지속성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8%이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릿의 세부 항목이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연구[17]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지속하는 경우와 다양한 목표나 새로운 관심사에 흥미를 갖는 경우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일치된다.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16]에서 노력지속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영향을 주었고, 흥미일관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를 반영해 해석하면, 흥미일관성이 취업준비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다양한 취업 분야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탐색하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각각의 분야에 대한 취업준비를 위해 많은 취업준비행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최근 COVID-19로 인해 지속되는 불안감과 경제위축으로 비교적 취업률이 높았던 간호대학생 또한 졸업 후 미취업자가 늘어가는 추세로, 졸업 후 취업이 기존에 비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6].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28]에 제시된 간호사취업분야는 병원 간호사를 기본으로 공무원, 보건교사, 산업간호사, 보험심사간호사 등 상당히 다양한 곳이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취업준비행동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는 간호사면허로 가능한 다양한 간호관련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취업지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유지하는 그릿의 노력지속성이 간호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최근 늘어난 간호대학 정원으로 인해 많은 졸업생들의 졸업 후 구직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6], 대학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취업준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취업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역량취프프로그램 등에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자기관리역량이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변인 간 직접적인 연구

결과가 드물어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여대생을 대상으로 자기개발역량과 취업준비도를 살펴본 연구[29]에서 취업과 관련된 계획 및 이를 수행하는 자기개발역량이 취업준비도 향상을 유도했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취업준비행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기평가를 통해 개인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 [30]인 자기개발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즉 간호대학생은 취업을 위하여 졸업 전에 자신의 능력과 수준을 파악하여 적절한 취업목표를 선정하고 이에 부합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자기관리 능력함양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부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관련한 요인으로 기존 연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자기관리역량의 영향 및 그릿의 흥미일관성과 노력지속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취업준비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데 의의가 있다. 추후 전 학년을 포함한 연구대상자 수의 확대하고, 반복연구를 통해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확인할 것을 제안한다.

5. 결론 및 제언

간호학과 졸업 후 비교적 취업률이 높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 취업이 기존에 비해 쉽지 않은 상황에 도래했기 때문에 간호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한 준비행동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관리역량 및 그릿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이들의 취업준비행동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자기관리역량, 그릿의 흥미일관성과 노력지속성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간호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관련 다양한 취업분야의 정보제공, 둘째, 스스로의 능력을 판단해 적절한 취업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셋째, 취업목표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취업준비프로그램 구성하여 운영하되, 프로그램 운영 시 학점이 높지 않은 학생을 우선적으로 참여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J. W. Yun. (2019).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Grit up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Mediating Effect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Master's thesis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 [2] S. H. Kim & M. J. Back. (2019). A Meta-analysis of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3(3), 409-419. DOI : 10.5932/JKPHN.2019.33.3.409
- [3] Y. H. Seo, J. W. Lim & B. Y. Jung. (2019). The effect of Career Calling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n empirical analysis of mediating effects of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and moderating effects of Colleg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2(3), 265-284. DOI : 10.32341/JCER.2019.09.32.3.265
- [4] M. S. Kim. (2019). The Analysis of Nursing Students' Work Value, Career Attitude Maturity Influence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20(11), 96-105. DOI : 10.5762/KAIS.2019.20.11.96
- [5] H. J. Choi & K. I. Jung. (2018). Moder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Job-seeking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Preparing for Employment.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4(1), 61-72. DOI : 10.11111/jkana.2018.24.1.61
- [6] S. O. Shin. (2020). Nursing students' Feelings of COVID-19, Work Values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12), 75-81. DOI : 10.22156/CS4SMB.2020.10.12.075
- [7] Y. G. Kim. (2014). *The Research that Self Competency Influences on the Management by Objective and the Satisfaction of an University life*.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Daejeon.
- [8] S. C. Kwon. (2017). A Study on Analysis of the self-management Competencies that Jeju University Students Recognized.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1(5), 61-96.
- [9] H. S. Song & S. H. Lim. (2020). Validity and Reliability of Korean Version of the Grit Scale for Korea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6(3), 322-331.
DOI : 10.5977/jkasne.2020.26.3.322
- [10] M. O. Yu.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Competen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Self-Management Competenc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Graduation Yea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7), 406-413.
DOI : 10.5762/KAIS.2019.20.7.406
- [11] A. L. Duckworth, C. Peterson, M. D. Matthews & D. R. Kelly.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 [12] J. Y. Lee, E. O. Jung, W. J. Lee & Y. J. Hur. (2019). A Concept Analysis of Nurses' Grit. *Journal of Crisisonomy*, 15(5), 35-48.
DOI : 10.14251/crisisonomy.2019.15.5.35
- [13] K. H. Baek & M. O. Cho. (2020). Effect of Grit and Resilience on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6), 363-371.
DOI : 10.14400/JDC.2020.18.6.363
- [14] S. J. Lee & J. Y. Park (2018). The Effects of Grit and Stress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2), 269-276.
DOI : 10.14400/JDC.2018.16.2.269
- [15] J. L. Lee. (2015).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Locus of Control, Mindset, Grit, and Academic Achievement*. Doctoral dissertation.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 [16] Y. S. Roh. (2016). *The Effects of High School Students' Gri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ster's thesis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17] J. S. Ahn, Y. A. Ku & A. R. Jo. (2018). A Study on the Effects of GRIT on Employment Motive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Dining and Culinary Art Education.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8(4), 73-94.
DOI : 10.35273/jec.2018.8.4.004
- [18] S. W. Hwang & H. S. Cha. (2020) Factors Influencing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5), 131-140.
DOI : 10.5762/KAIS.2020.21.5.131
- [19] S. Y. Yi, P. S. Soung & Y. K. Kim. (2017). A Study on the Influence of Background Variable of Nursing Students, Career Pla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Career Development on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Health Service Management Review*, 11(4), 49-68.
DOI : 10.18014/hsmr.2017.11.4.49
- [20] F. Faul, E. Erdfelder, A. Buchner & A. G. Lan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4), 1149-1160.
DOI : 10.3758/brm.41.4.1149
- [21] D. Hellriegel & J. W. Slocum. (2011). *Organizational Behavior* : South-Western Cengage Learning.
- [22] J. P. Rojas, J. A. Reser, E. L. Usher & M. D. Toland. (2012).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academic grit scale*. Lexington : University of Kentucky.
- [23] Y. J. Han. (2014).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Instruction Participation and Major Satisfaction and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y the Major Selection Motive and their Work Values of University Students*. Kyungsoong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Busan.
- [24] Y. K. Yim. (2017). *Impacts of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Career-choice Readiness on Job-Seeking Stres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Airline Service*. Master's thesis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Seoul.
- [25] P. G. Baek. (2013). A Study on Relationships and Characteristics between Korean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nd Undergraduates' Individual Variant Factor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7(3), 349-387.
UCI : G704-SER000001745.2013.7.3.010
- [26] M. R. Jeon & B. W. Kim. (2015). The Effects of Big 5 Personality and Cognitive Behavioral Variables on Career Decision Level of College Students in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8(4), 41-57.
- [27] J. Y. Ha, J. M. Kim, J. Y. Kang & G. C. Cha. (2017). Analysis of the Differences Among Core Competency of Collegiat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Barrier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5), 80-89.
DOI : 10.5392/JKCA.2017.17.05.080

- [28] Korean Nurses Association. Areas of Employment for Nurses
http://www.koreanurse.or.kr/resources/nurse_job.php
- [29] H. Y. Kim & G. U. Kim. (2018). Structural Analysis of Self-Development Competency and Employment Readiness to improve the Job Achievement of Women's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4), 29-37.*
DOI : 10.14400/JDC.2018.16.4.029
- [30] M. S. Jin, Y. M. Sohn & H. J. Chu. (2011). A Study on Development Plan of K-CESA for College Education Assess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9(4), 461-486*

김 은 아 (Eun-A Kim)

[정회원]



- 2011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1년 3월 : 전남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기초간호, 지역사회간호
- E-Mail : eakim@dsu.kr

우 상 준 (Sang-Jun Woo)

[정회원]



- 2008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5년 8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의료경영
- E-Mail : woosj@dsu.ac.kr

박 경 임 (Kyung-Im Park)

[정회원]



- 2011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1년 3월 :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2년 3월 ~ 현재 : 전남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전문직관, 성장과 발달
- E-Mail : kip@cntu.ac.kr